

# 관현악과

| 지세진(??학번)

## INSTRUMENTAL MUSIC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지세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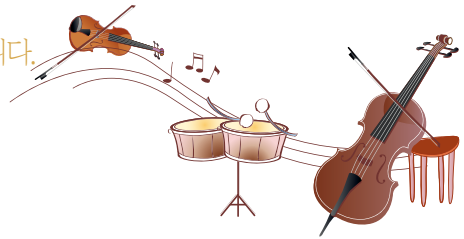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안에는 교회음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그리고 작곡과 까지

총 5개의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의 다른 음악적 특징을 살려서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듣고 배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현악과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관현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작곡가의 무기는 연필과 공책, 성악가의 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대! 그렇다면 관현악과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악기입니다. 관현악과 안에서는 악기가 필수적입니다.

관현악과는 최고 수준의 전문 연주자를 배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교수님들을 통해 심도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연주적 수월성과 음악적 통찰력을 겸비한 창조적인 연주자를 배출하고 있는 관현악과는 협연, 앙상블, 등의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들은 수많은 연주자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관현악과 안에서는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전공 악기로 그 작곡가들의 시대적 특징을 연구하며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음악이론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며 긴 시간 그 곡을 연마하여 완성도를 높여서 무대 위에 청중들과 음악을 통해 공감하는 연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주'라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연습과 레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작곡가들을 이어 세계적인 연주자를 꿈꾸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개인적인 연습량입니다. 청중 앞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청중과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관현악과 학생들은 한 작품을 갖고 긴 시간을 거쳐 수 백 시간 연습을 합니다.

관현악과에서는 이러한 무대경험을 쌓기 위해 작은 무대에서부터 큰 무대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현악과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학내연주(Weekly Recital)'를 통해 관현악과

학생들은 4년 동안 학생들만의 연주를 갖고 있습니다.

학내 연주는 단순히 연주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빠르게 자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작품의 완성도를 갖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쉽게 말해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관현악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악기를 연마하는 것만큼 중요한 수업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수업은 관현악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악기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카리안 못지 않은 실력을 소유하신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에 귀기울이며 화합하고 다른 사람이 내는 악기소리와 자신의 악기소리를 적절히 섞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관현악과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연주도 갖게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오디션 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독주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현악 합주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한 번씩 따로 연주도 진행됩니다.

이 수업들은 오케스트라 수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현악 합주는 현악기(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가 모여 합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 합주는 관악기 중 목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플루트,클라리넷,오보에,바순,색소폰)과 금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호른,트럼펫,트롬본,튜바 등), 타악기와 하프, 더블베이스가 모여 연주합니다. 이 수업은 오케스트라와 달리 악기별 특징을 두 개로 나눠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 Q&A

### 보통 관악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누구나 다릅니다. 또한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일찍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재능과 흥미를 일찍 찾아 노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하루에 연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연습한다면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연습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시간은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연습방법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효과적인 연습방법에는 하루 연습 계획을 쓰고, 하루씩 목표를 정해 해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제보다 더 향상된 실력의 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관현악과의 특성상 악기를 다루는 시간과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악기를 더 심도 있게 배우고 나아가 클래식 음악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화성학
- 대위법
- 관현악
- 특수 악기 연주 세미나
- 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워크숍 등
- 시창 · 청음
- 음악사
- 실내악
- 현대음악 앙상블

## 졸업 후 진로

- 연주자
- 지휘자
- 지도교수
- 음악감독
- 오케스트라 단원
- 음악관련 직업 종사자 등

## Plus+

음악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관현악과를 다니고 있는 또는 관현악과를 진학하기 위해 꿈꾸는 학생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伸)의 영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기를 통해 우리의 호흡을 넣고 현을 마찰시켜 울림 속에서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기와 현악기 소리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듣는 청중에게는 항상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노력 이전에 자신의 악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악기와 교감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수준 높은 연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 되어 울리는 감동을 느끼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